

광동제약, GC H&P에 천연물 항암제 기술이전

광동제약이 천연물신약 전문 벤처기업 GC H&P(대표 유영효)와 천연물 소재 항암제 <BST204>의 기술이전 계약을 4월10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GC H&P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R&D 중심의 녹십자 계열생명공학 기업으로서 난치성 질환 및 성인병에 대한 신약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암제 BST204는 인삼의 항암 활성 성분을 특수 발효 공법에 의해 강화한 제품으로, 동물시험 결과 고형암에 대해 기존 항암제와 병용시 항암 효과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주약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항암 활성작용은 물론 우수한 부작용 경감 작용도 보여 환자의 삶의 질(QO: Quality of Life)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ST204는 1차 적응증인 대장암에 대해 IND(임상시험계획승인)를 받은 상태이며, 곧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해 2011년 출시 예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암종에도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도입 계약된 백혈병 치료제 및 항구토제 젠사나 등을 기반으로 항암 분야 전문기업로 육성시켜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8/04/10>